

慈悲와 奉仕의 化身, 최태순 형을 보내며

박 승 균 (61 년)

“A man whose life defined by faith, service and family.” (From Family obituary)

사랑하는 친구 최태순 형은 지난 1 월 18 일 향년 85 세로 이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순형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우선 그의 친절하고 온화한 성품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그의 넓고 깊은 사랑과 인자함은 이세상에서 보통 사용하는 우리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늘 겸손하고 과묵(寡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마치 춤고 눈보라치는 밖에서 따뜻한 안방으로 들어섰을 때처럼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훈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큰사랑은 말보다는 인품과 행동에서 은연(隱然)이 풍겨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도 태순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적마다 그의 옆에 가까이 앉아있었지만 한편 그는 내가 미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태순형은 어릴 때부터 깊은 역사를 가진 독실한 Catholic 신자였습니다. 옛날에는 본인도 신부가 되시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태순형은 많은 신부, 수녀님들과 교류하였고 또 수많은 Catholic 신도들로부터 지극한 신뢰와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태순형은 많은 신자들의 대부(代父)가 되어주었습니다. 저의 선친(先親) 깨서도 태순형을 대부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은 큰 영광이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태순형은 불운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Buffalo Mercy Hospital 이라는 Catholic 병원에서 Chief of Neonatology 로 오래 일했습니다. 그는 특히 Intensive Care Nursery 를 맡고 있었는데 은퇴하는 끝날까지 수십 년 동안 문자 그대로 매일, 낮에도 밤에도, 계속 on call 을 한 셈입니다. 그곳에는 물론 소아과 레지던트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정말로 위급한 상태가 생기면 태순선생을 불렀고 그러면 예외없이 그는 한밤중에도 늘 달려갔습니다. 눈이 많이 오고 길이 미끄러울 때는 부인께서 많이 걱정도 하셨지만 본인은 절대로, 한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습니다. 태순형이 손수 살려낸 이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그는 천사와 같은 은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태순형의 현저한 공로를 감사하는 의미로 1999 년에 그 병원 신생아 ICU 를 “Tai-Soon Choi, M.D. Intensive Care Nursery” 로 명명하였으니 그의 이름과 함께 그가 쏟아온 일평생의 사랑과 봉사의 역사가 여기에 영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동기 이회백 군의 말을 빌리면 “ 최 태순은 우리들 중 가장 으뜸가는 의사이며 우리의 Dr. Schweitzer 요 우리의 장기려 박사” 라고 하였습니다.

태순형은 뒤로 미망인 용의 여사와 두 따님 Susanna, Sylvia 그리고 아드님 Steven, 손자 손녀 여섯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심장질환과 척추 통증으로 고생하던 수년동안 부인과 가족들이 보여준 정성은 사랑으로 넘치는 한가정의 아름다운 전설 같은 것이었습니다. 벌써 오래전 큰 따님 Susanna 의 결혼식날 모처럼 태순형이 세상 모든 과제를 미루어 놓고 온가족과 어울려 덩실덩실 춤을 추던 그 순박하고 행복에 넘치던 얼굴을 나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태순형은 훌쩍 떠나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몸도 영혼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남을 위해 바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훌가분하게. 후회도 없이.

그러나 우리는 태순형을 잊지 않으리이다. 그 인자한 모습. 고결한 인품. 언제나 넘치는 사랑.

